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새해 초 여러 곳에서 주는 달력을 마다하고 하루하루 떼어 내는 일력을 사다가 걸었다. 내심 올해는 '일신일신 우일신' (日新日新 又日新)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장씩 떼어 내며 새로운 날을 살아 보겠다는 각오는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다. 오늘은 한꺼번에 여섯 장을 떼어 냈다. 시간이 빨리 흘러서일까. 달력을 떼어 낼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였을까. 어느새 달력의 두께는 아주 얇아졌다. 절기상으로도 상강을 향해 달려가니 월동 준비도 해야 하고, 금세 새해가 올 것만 같다.

올해가 아직도 두어 달이나 남았는데도 지금 새해 타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년이면 나는 육십이 된다. 내가 어떻게 육십이라는 나이를 먹었지? 육십이라는 나이는 옆집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있을 나이가 아닌 어떻게 나에게 육십이라는 나이가 오나? 이제 늙어 갈 일밖에 없겠다고 인식하는 순간 달력 겹이 나고 두렵기도 했다. 나보다 먼저 육십을 맞은 사람들도 이런 심정이 있었는지?

육십을 맞이하는 게 이렇게 두려운데 사람들은 왜 인

왜 '인생은 육십부터' 일까

생은 육십부터라고 했을까? 나는 그 답을 찾아 나섰다. '논어 위정' 편에는 공자가 본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구절이 있다. 공자는 나이 십오 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삼십에 홀로 설 수 있었으며, 사십은 불혹이라 하였고, 오십에 지천명하였으며, 육십에 이순하였고, 칠십에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여도 법과 도덕에 저촉됨이 없다고 하였다.

어느 구절보다 육십에 귀가 순해진다는 말의 뜻이 문득 궁금해진다. 논어를 다시 꺼내어 읽어 보았다. 송대 주희가 주를 달아 놓기를 육십은 마음이 통하여(心通)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을 아는 때라고 했다. 결국 마음이란 것은 육십이 되어야 성숙해지고 무르익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과 쉬이 마음이 통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나 보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영복 교수는 오랜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이 읽어 온 동양고전을 정리하여 '강의'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신 교수가 동양고전을 꿰뚫어 읽고 터득한 마음에 관한 구절 하나를 인용해 본다. "마음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착하다는 뜻이다.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자기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착하다는 것은 이처럼 관계에 대한 배려를 감성적 차원으로 완성해 놓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머리로 이해하거나 좌우명으로 걸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의식 속에 녹아들어 있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인생은 육십부터라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는 100세 시대가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중간에 적어도 한 번은 은퇴를 해야 한다. 수입은 적어지고 나이는 많아지고 고뇌는 깊어진다. 은퇴하는 시점을 인생의 끝으로 잡을 것인지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잡을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몫이고 나의 선택이다.

육십이라는 나이는 그간의 경험과 연륜에 마음마저 통하는 때이니 인생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살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구순의 우리 어머니는 내가 육십만 됐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볼 수 있겠다고 했을 정도로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이 많으셨다. 구십세의 어느 노 교수님은 육십오 세에 은퇴한 후 그저 쉬기만 했는데 구십까지 살 줄 알았더라면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해 해야 했었다고 고백하셨다.

내 인생 삼십에 홀로 설 때는 패기 하나로 살아 냈다. 육십인 지금은 경험과 연륜을 얻었으며, 나와 마음을 나눌 내 편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번 해 볼 만하다. 전국의 지자체에도 50플러스라는 기관을 두고 인생 이모작을 응원해 주고 있다. 내년에도 나는 내가 해 보고 싶었던 일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 보려 한다.

도전은 꿈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흥분되고 설레는데 실행해 나가면 얼마나 더 가슴 벅찰까 상상해 보자. 작은 도전이 큰 변화가 되고 그 변화는 내 운명을 바꿀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종교칼럼

수레의 두 바퀴, 종교와 정치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바른길로 인도하며, 정의의 실현이나 모든 사람의 행복과 관련된 일에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러한 이념에 근거해 볼 때 종교가 현실 정치에 초연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정치는 종교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종교는 바른 정치가 되도록 힘을 빌려 주어 대중을 교화하는 것이 정교동심(政敎同心)의 본의라 할 수 있다.

정산종사(송규 1900-1962)께서는 해방 후 건국론(建國論)을 저술하여 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포 구호, 한글 보급 등 건국 준비에 적극 노력하셨지만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발전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종교의 현실 참여 문제는 중도를 잡기가 어려웠고 고민스러울 때가 많았다.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가를 가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스승의 본의와 당시의 형편'을 살피는 것으로 취사의 대중을 잡아 가는 원칙을 삼는다면 그 길이 보일 듯싶다.

'정치 현실에 대한 교단이나 성직자의 바람직한 참여 범위, 시사에 대한 시비를 논하는 문제, 바른 지도자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서 지혜를 구한다면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하나 예배 혹은 모임 공부방 등의 종교활동 현장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그곳으로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이다. 대체로 같은 신앙을 갖는 입장에서 자기 교단에 이로우려는 자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후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같다고 해서 정치적 견해가 같을 수 없고 더욱이 이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종교인 가운데는 후보자와의 관계, 정치적 견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역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떠나 특정 후보를 지원하게 될 때에는 자칫 시비의 대상이 되어 교회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천주교에서는 사목회장이나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해당 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선거법에서 출마자가 공직을 사퇴하는 것과 같은 취지일 것이다.

교도나 신도의 회장이나 교도가 관련되어 심정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본위의 정신과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입장에서 사안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들에 대한 뉘그러나 누구를 지지해야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현장에 밀접히 관계하여 호흡하는 교도나 신도들이 더 밝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성직자는 그 원칙적인 정신과 이념을 세워주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정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교법 정신과 과거의 역사를 반조하면 종교인이 취해야 할 합당한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기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김기홍
전남도 정책기획관

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할 수 있는 창구로서 행정 차원의 '제안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과 공무원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이다. 전라남도 역시 도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매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함께 수시로 제안 제도를 운영하여 전남도정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좋은 제도 개선 사례가 있었다. 기존 도지사 품질 인증 농·수·특산물과 동일한 시설이나 농지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 추가로 품질 인증을 신청하면 행정 처리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5일로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농수산물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코로나19로 힘든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도정에 좋은 변화를 가져온 제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안자의 자세와 제안 방법이다. 제안을 잘하는 사람은 평소 사소한 불편 사항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를 연구한다. 본인의 관심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 한다. 제안 방법도 남다르다. 보통의 아이디어들은 성급하

게 결론을 내는 바람에 심사자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 채택되는 아이디어들을 보면 제안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가 보인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제안과 관련된 제도나 사회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 제안서를 탄탄하게 구축한다.

그러나 제안 제도는 좋은 제안자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정책화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수용의 자세'를 지닌 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창의적인 제안자와 능동적인 수용자가 잘 어우러져 도정 전반에 혁신과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제안 제도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우편, 팩스를 통해 귀를 열어놓고 있으며, 특히 내달 18일까지 '2021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남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도민의 얼굴에 웃음짓기만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누구나 주저 말고 찾아와 들려 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똑똑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社說

호남의 '전략적 선택' 이번에도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추석인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광주·전남은 25일, 전북은 26일 공개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는 전체의 28%로 지금까지 투표가 끝난 충청, 대구·경북, 강원을 합친 것보다 두 배나 많다. 이런 점을 잘 알기에 두 후보는 추석 연휴 기간 호남에 상주하며 민심잡기에 올인했다. 특히 그동안 호남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점에서도 호남인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에서 호남인들이 보여 온 투표 성향을 흔히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 과연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까?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곧바로 대선 후보로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어 결선 투표의 기회를 줄 것인지?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추석 연휴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혼전 앙상이어서 양측 캠프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될 사람 밀어주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며 호남인들이 이 지사를 선택해 경쟁 구도를 끝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역동적인 경선판을 위해 결선투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며 호남 민심이 이 전 대표에게 쏠릴 것으로 믿는다.

호남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다. 그렇지만 추측에 확인한 호남 민심은 누가 후보가 되든 똘똘 뭉쳐 정권 재창출을 해 달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것은 양측이 낯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후보들은 '유타미 정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 겸허히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광주권 광역 도시계획' 미래 발전 계기로

광주와 전남도가 광주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도시권 조성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양 시도가 현재 추진 중인 '2040 광주권 광역 도시계획'에는 광주와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5개 시군을 단일 권역으로 묶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전략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연계를 바탕으로 지방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비전이다.

양 시도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종합계획과 전남도 및 광주시 도시계획 등의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발전 내용을 공유하고 광역 도시계획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 계획과 맞물려 지난 달 광주시와 전남 5개 시군이 '광역 스마트 시티' 조성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도 주목된다. 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밸리 여건으로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현재 173만 명인 광주시와 5개 시군 인구를 2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추진하는 광역 도시권 사업은 미래 도시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전남권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윈윈 전략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침체된 지방이 주체적으로 행정구역의 밀집을 그리는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양 시도는 이제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FIFA(국제축구연맹)의글로벌축구발전을위임원장인'전략가'아르센벵거의새로운'전략'이세계축구계를뒤흔들고있다.월드컵축구를4년이아닌2년마다여는방안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육상·제조·수영 등 다른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격년제 시행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에 비해 축구는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4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알렉산더 세페린 UEFA(유럽축구협회) 회장도 격년제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석은 희귀성 때문에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유럽의 클럽팀들 역시 국가대표팀 경기 A매치가 자주 열린다면 혹사로 인한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 그리고 부상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는 해마다 열리는 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 권위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선수들의 혹사 논란 역시 복잡한 A매치 일정 때문일 뿐이다. 벵거는 매해 3월부터 11월까지 5개월(3·6·9·10·11월)에 걸쳐 월 1~2회 치르는 A매치를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치르자고 말한다. 2026년 북중미월드컵부

터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시스템을 바꾸면 2년간 실시하는 대륙별 예선도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선수 혹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FIFA가 수익 증대를 위해 2년제 월드컵을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UEFA가 네이션스리그를 열고 챔피언스리그도 32개 팀에서 36개 팀으로 조정해 경기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돈벌이를 위한 것은 마찬가지다. 서로를 비난하는 '내로남불' 주장에 앞서 어떤 방식의 월드컵이 세계 축구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나 하는 것을 따져 봐야 할 때다.

FIFA는 오는 30일 온라인 화상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실행 작업에 나서고 연말까지 21개 전체 회원국을 상대로 찬반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AFC(아시아축구연맹)는 아시아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이 활약할 기회가 생긴다며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유럽인이나 유럽의 클럽 팀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유재관 편집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주국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